

종이로 만드는 세상



진리반 어린이들이 만드는 세상



“종이로 팽이를 접어요”

“토끼 가족을 그렸어요”

“K - Pop 데몬헌터스에 나오는 사람을 그렸어요.”

“무지개를 만드는 거예요”

“캐릭터 만들어서 놀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나물줄이에요”



진리반 유아들은 미술놀이를 하면서 종이를 이용하여 종이를 접어 구성하거나, 그림을 그려 색칠을 하고, 캐릭터를 그려 인형놀이를 하는 등 종이를 이용하여 많은 놀이를 합니다.

“종이로 미술놀이를 하면 어떤 점이 좋아?”

“종이는 가위로 잘 오려져요”

“그림도 마음대로 그리고 지울 수 있어요”

“만들다가 찢어져도 붙이면 돼요”

“가볍고 모양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서 좋아요”



유아들은 종이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작품들을 소개하며 왜 미술놀이를 할 때 종이를 많이 사용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보기도 하고, 사용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종이를 왜 좋아하는지! 이야기해 보며 **종이는 우리가 쉽게 놀이로 사용되며 단순한재료가 아니라 생각을 표현하는도구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든 그릇



물감 그림작품



우리가 만든 꽃



종이접시



종이접기



종이 꽃



종이 책

우리 주변에도 많은 종이가 있고, 그 종이가 다양하게 사용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됨으로서 **종이의 다양한 쓰임과 종이로 만든 작품들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양쪽을 붙이니까 동그랗게 되었어



“동그라미를 붙여서 눈사람을 만들었어”



“난 길쭉해졌는데?”
“물고기도
만들어줄거야”



“나는 왕관을 만들거야”
“종이를 접어서 붙이면 더 예쁜
왕관이돼~”

유아들이 사용하는 큰 네모 종이대신에 긴 띠 종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 긴 띠로 된 종이는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유아들은 새롭게 재료를 탐색하며
자기만의 생각으로 다양하게 만들어 갑니다.



“난 왕관을 만들었어”



“나도 왕관을 만들었어”
“와~ 진짜 멋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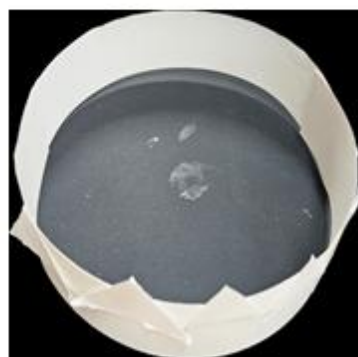
“난 고양이 모양 팔찌야”



“어? 나는 고양이 인형
인데 비슷하다.”



“난 포켓몬스터 놀이하는거야!
멋지지?”



<< 왕관1 >>



<< 왕관2 >>



<< 팔찌 >>



<< 고양이 인형 >>



<< 놀이도구 >>

동그랗게 붙여 머리에 써 보거나, 팔찌를 하거나, 포켓몬스터 놀이하는 도구를 만들어보기도하고...



<< 줄자 >>



“이건 뭐야? 진짜 길다.”

“그치? 이건 이어 붙였어! 이렇게 돌돌 말아놔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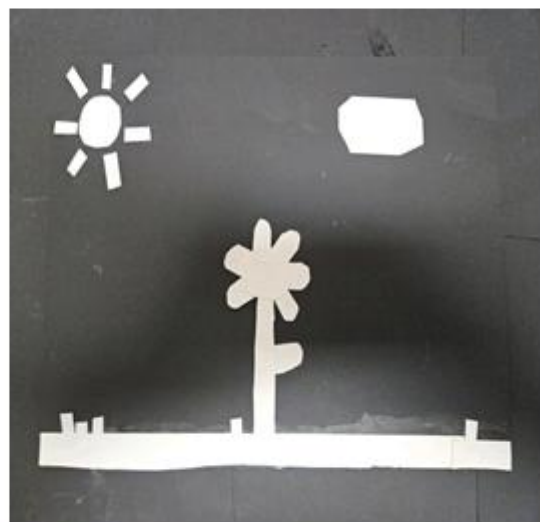
“왜? 이건 줄자 거든. 돌돌 말려있어.”

“내가 너 키도 재어줄게. 잡고있어!”

자신이 만든 것을 이용하여 놀이하는 방법을 친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종이를 돌돌 말아 만들어서 풀릴 수 있으니 케이스를 만들어 고정 시켜주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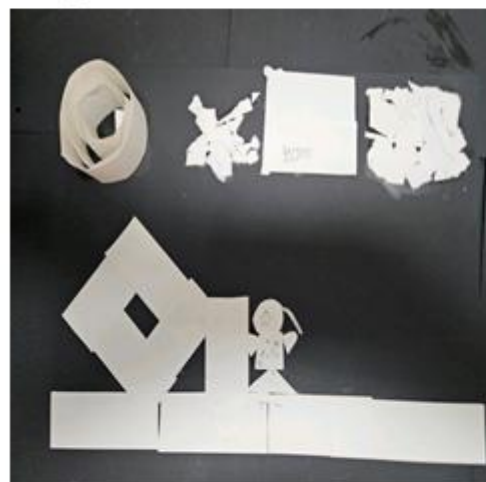
“이건 떡볶이예요.”
“돌돌말면 껌도 돼요”



“꽃밭그림이에요”
“가위로 잘라서 모양을 만들었어요”



“난 별도 구름도 모두 잘라서
붙인거야”



“나는 나무를 만들었어.”

또 어떤 유아들은 가위로 모양을 잘라서 그림액자라며 오리고 붙여서 모양을 표현해주시기도 합니다.

<< 문어 >>



“난 동그라미에다가 뭐를 하지?”
“아! 난 문어 좋아하니까 다리를 붙여야겠다”



<< 집 >>



“접고 또 접어서 집을 만들어야지.”
“어? 그런데 왜 안세워지지?”
“종이로 더 붙여주면 되는구나!”

또 어떤 유아는 종이를 싹둑싹둑 잘라 붙이기도 하고, 집을 세워 입체를 만들어 주기도 하며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종이를 통한 상상의 구성놀이를 합니다.

산
터널
길을 걷는
사람



사과 나무 아파트

신호등 표지판

시소

터널

찾길

“ 세모로 접으니까 산같아!”

“산은 우리 아파트 뒤에 만드는데 어때?”

“사과나무도 만들어 줘야겠다.

산에는 나무가 많잖아.”

“그 앞에 터널도 있대!”

“자동차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 갈수 있어”

“그럼 횡단보도도 만들어야겠네.”

.

.

“그런데 색깔 종이가 있으면 진짜

잔디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

“산도 초록이면 진짜 같을 것 같은데...”

맞아! 색깔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띠종이는 혼자 만들기가 아닌 함께 만들기로 연결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생각으로 마을이 완성되고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하얀 종이로 만들며 이야기를 만들던 유아들은 **색깔 종이로도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색깔 띠종이를 가지고 왔어!!”

“와~~ 예뻐요!!

파란색이랑 하늘색은 꼭
바다색같아요!!”

“연두색이랑 초록색은 꼭 숲속이
떠올라요~~”



“이 종이로도 너희들의 생각대로
만들어 볼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만들고 싶은 색깔로 만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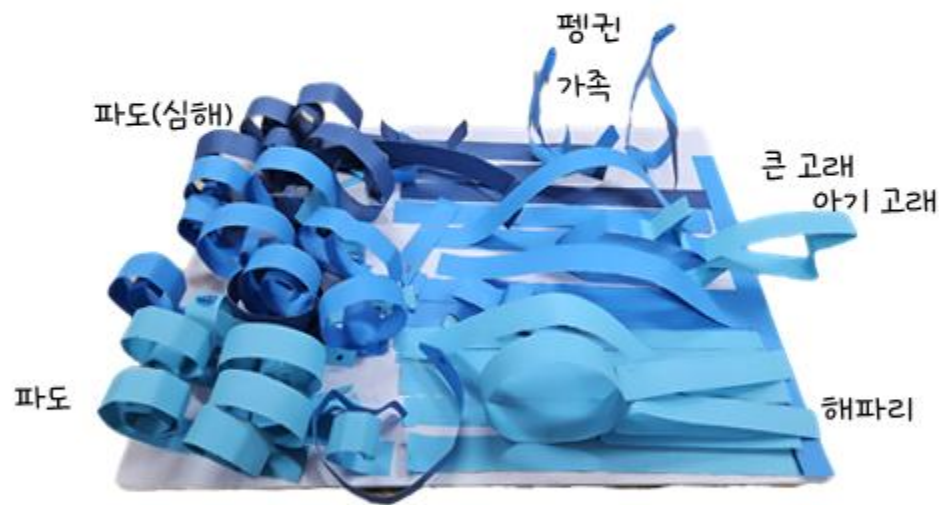
“저는 숲속을 만들고 싶어요”

“어떤 방법으로 나눠서 만들까?”

“비슷하게 친구들이 할수 있게
가위바위보로 정하는거 어때요?”

“우선 손을 들고 정하다가
너무 많으면 가위바위보로 정해요”

유아들에게 색깔 띠종이를 구분해서 각각의 비슷한 색을 보여주었더니
색깔로 연상되는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분류된 띠종이를 어떻게 친구들과 만들 수 있을까 정해서 팀을 만들어 봅니다.



파도속에 숨어버린 열치, 갈치, 아귀, 상어, 물고기, 갯강구등

“여기는 바다라고 하자!”

“동그랗게 마니까 꼭 파도같지?”

“맞아. 근데 점점 깊어진다고하자. 바로 심해야 심해.”

“어디가 심해야?”

“ 파란색쪽으로 갈수록 심해가 되는거야!”

“그래. 난 바다에 있는 고래를 만들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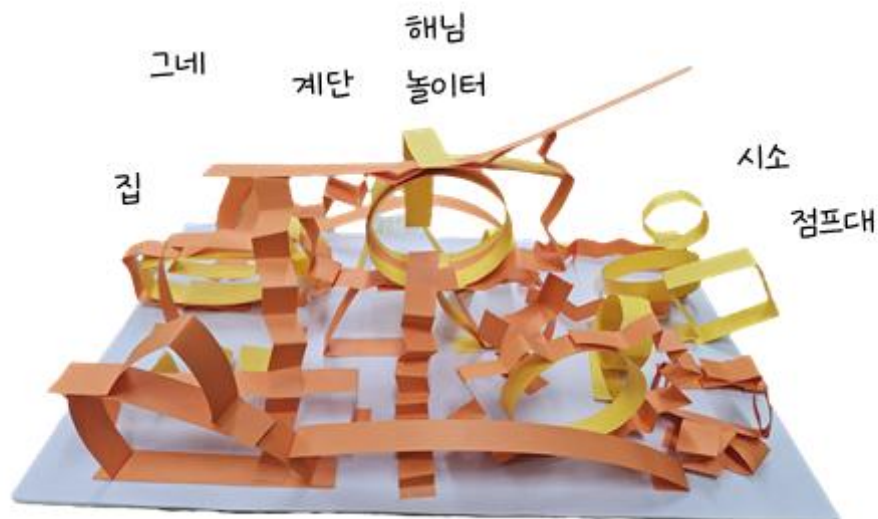
종이를 길게 붙여서 만들고 여기에 놓을래.”

“나는 물고기. 이걸 멸치래~ 그건 뭐야?”

“이건 갈치랑 갯강구야! 파도속에 숨었다고 하자”

“맞아! 물고기들이 모두 숨바꼭질 하는거야”

유아들에게 파란색은 파도와 바다. 물을 생각나게 합니다.
점점 깊어질수록 색이 짙어지는 것을 색을 이용 해 표현해내기도 하고,
바닷속 생물들의 숨바꼭질도 시작됩니다.



“주황색이랑 노랑은 꼭 햇님같아!” 햇님 나라 만들자!

“나는 망고같은데...”

“그럼 너는 망고햇님을 만들어! 햇님도 여러 햇님이 있잖아.”
“좋아!”

“우리 그냥 햇님 놀이터 만들자!”

“점프대도 만들고, 시소도 만들고 햇님 모양의 놀이터가 되는거야”

“진짜 많이 접었더니 계단이 진짜 많아!”

유아들에게 주황색과 노란색은 햇님을 나타내기도 하지요.

처음에는 다양한 햇님을 만들려고 했지만, 만들어 가면서 이야기는 점점 더 상상을 더해갑니다. 햇님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종이를 접어 계단을 만들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만듭니다.



장미꽃밭

유니콘

장미



연못

“분홍색 너무 예쁘다~~~” “우리 이거로 뭐할까?”

“장미꽃어때? 예쁘겠다. 많이 만들자! 이렇게 말면 꽃같지?”

“그런데 우리.

장미꽃밭에 유니콘이 놀러온거 하는 거 어때?”

“유니콘이 아기랑 놀다가 목마를 수있으니까 연못도 만들래”

이렇게 동그랗게 해야 연못같지?”

“그런데 이 가루는 뭐야?”

“장미꽃가루가 떨어진거야~~~”

유아들에게 빨강과 핑크는 장미꽃을 연상하며 만들기를 합니다.

한친구가 만든 장미꽃을 보며 함께 배우며 만들어 나갑니다.

장미꽃밭을 만들다 던 유아들은 장미꽃밭에 놀러온 유니콘도 만들며 이야기를 짓습니다.



“이건 너무 숲속이다! 그치?”

“맞아. 난 이렇게 접었더니 풀이되었어!”

“이렇게 하면 새싹도 만들어져~”

“돌돌돌 말면 잔디밭 같지 않아?”

.

.

“그럼 내가 풀밭에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볼게”

“엄청 빠른 미끄럼틀도 만들거야”

유아들에게 초록색은 풀과 나무, 숲속, 잔디, 산등의 자연이 되기도 합니다.
 색깔종이는 상상의 세계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색깔 종이는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색깔로 연상되는 상상의 이야기가 만들어 지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하나의 공동작품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종이의 또다른 특성과 형태를 변화시켜주기위해
종이와 물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유아들은 다양한 종이를 물에 적셔봅니다.

“이건 진짜 **빨리** 젖어!!”

“이건 색깔이 검정으로 변해”

“와~ 물에 적으니까 소리도 안나.”

“**힘도** 약해!”

“진짜 **흐물흐물**한데..”

“느낌이 좋아! **부드러워** 더 넣어볼래”

“우리 다시 뭉쳐보자”

예쁜 색 물이나와!!”

“우리 더 세게 짜보자”



종이는 물에 젖는다는 것에 관심을 갖고 다른 종이도 어떻게 되는지 종이를 물에 넣어 손끝으로 탐색합니다.

물에 젖은 종이의 질감을 느끼고 물의 색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며 종이를 짜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종이를 섞다 보니 지저분해 진다는 것을 느끼고 색깔 별로 적셔보고 싶다고 이야기 합니다.



“진짜 부드러워. 좀 누렁지같아”
“난 적시고 찢으니까 더 잘된다”
“손으로 모아볼거야!”
“물을 꼭 짜야돼!”
“와~ 공처럼 뭉쳐지는데?”



종이를 잘라서도 넣어보고, 통째로 넣어서 젖은 종이를 잘라보기도 하고 주물럭 거리기도 하며 탐색이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젖은 종이가 아니라, 새로운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며 조형 가능성을 탐색하기도 합니다.



와!!! 하트가 만들어졌다~~~~
손으로 꼭! 짜면 모양이 만들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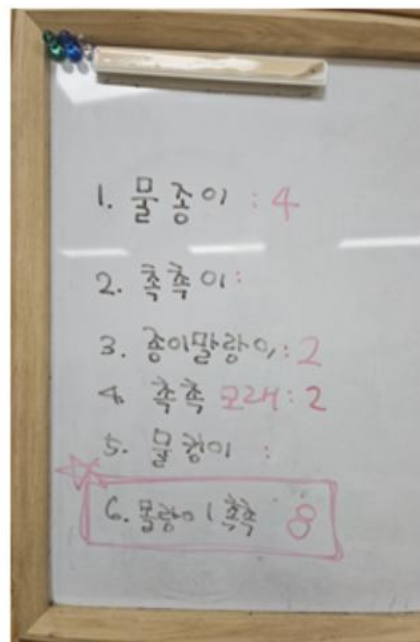
우리는 성만들거야!!
이걸로 모양을 만들 수 있을것 같은데...



그런데 색이
너무 적어!

다른 색깔도
있으면 좋겠어~

종이를 꼭! 쥐고 비틀어 보며 **종이의 형태가 변하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모양을 보며 이름을 붙여보기도 하며 새로운 이미지를 발견하고 이름을 붙이며
상상과 표현이 확장됩니다.



“물에 적신 종이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

→ 물랑이 촉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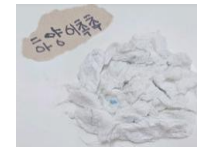
만들기를 하기위해서는 더 다양한 색이 필요하다는 친구들과 더 많은 종이를 적서 재료를 만듭니다.
 다양한 색이 나올 수록 표현 할 수 있는 이미지와 상상이 풍부해짐을 경험하며 재료를 확장해 나갑니다.
 재료를 만들어 가면서 '젖은 종이'가 아닌 특별한 이름을 지어보기도하고 의미부여를 해봅니다.



장미촉촉



두쫘쿠촉촉



하양이 촉촉



복숭아 촉촉



잔디밭 촉촉



수박촉촉



포도촉촉



굴촉촉



블루바다촉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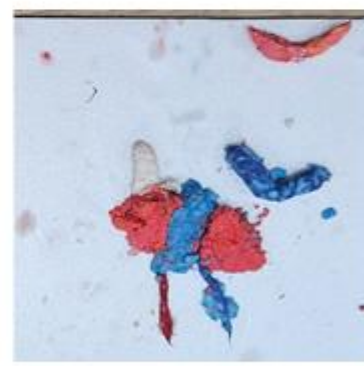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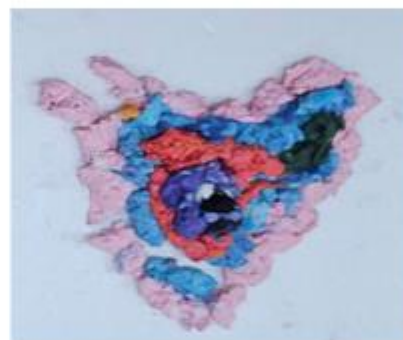
블랙촉촉

손으로 탐색을 하고. 담아주던 유아들은 “와~ 이거 복숭아 같아! 두쫘쿠아냐?”하며 물랑이 촉촉 하나하나에 또다른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색을 감각적으로 인식하며 상상과 기억을 연결하며 여러가지 색의 물랑이 촉촉마다 이름을 지어줍니다.



다 떨어졌다!!!



손으로 꼭!! 짜서 자신이 만들고 싶은 상상의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동글동글 굴려주기도 하고, 길게 펴주기도 하고, 손으로 모양을 만들어 가며 작품을 완성해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마르면서 바닥과 작품이 분리되고, 종이가 서로 떨어져버린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물은 꼭!!! 짜야해요~”

“풀을 미리 많이 발라주어야 해요~”

“물랑이 촉촉을 붙일 때는 꼭 눌러야 해요”



“난 하트를 좋아하니까
무지개로 만들어야지~”



“리본위에 붙이려면
물기를 더 짜야겠다”



종이가 물이 있을때는 잘 붙었지만 종이가 말라버리면 다시 딱딱한 종이가 되돌아간다는 것을 경험하고
물랑이 촉촉을 붙이기 위해서는 **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풀을 이용해서 다시 물랑이 촉촉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 기린 >>



<< 토끼 >>



<< 상어 >>



<< 나비 >>



<< 꽃밭 >>



<< 화분 >>



<< 꽃밭 >>



<< 지구 >>

몰랑이 축축을 이용해서 다양한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봅니다.
나의 작품에 이름을 지어 의미부여해 보기도합니다.



<< 리본 >>



<< 별 >>



<< 하트 >>



<<유니콘하트 >>



<< 날개하트 >>



<< 눈송이 하트 >>



<< 하트 >>



<<천사하트 >>

자신이 만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소개하며 '내 작품'으로 인식을 하고
친구의 작품을 보며 다양한 표현을 감상합니다.



“왜 작품이라고 생각했어?”

“멋있어요.”

“잘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성껏 만들었으니까요”

“주제에 맞게 만든거라서요”

“전시장에 가면 이렇게 멋진
것이 있어요. 그게 작품이에요 ”



친구들이 만든 것을 모아 전시해 보며 감상해 보았습니다.

“와~ 작품같아요 ” 하고 이야기 하며 결과물을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만든 것을 보고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며 멋지다고 이야기를 하며 다양한 종이작품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나도 에릭칼처럼~



"너무 귀여워요~"
"종이를 자른거예요?"
"무늬가 다양하네요"



"난 문어를 만들거야."
"문어는 파란색이 어울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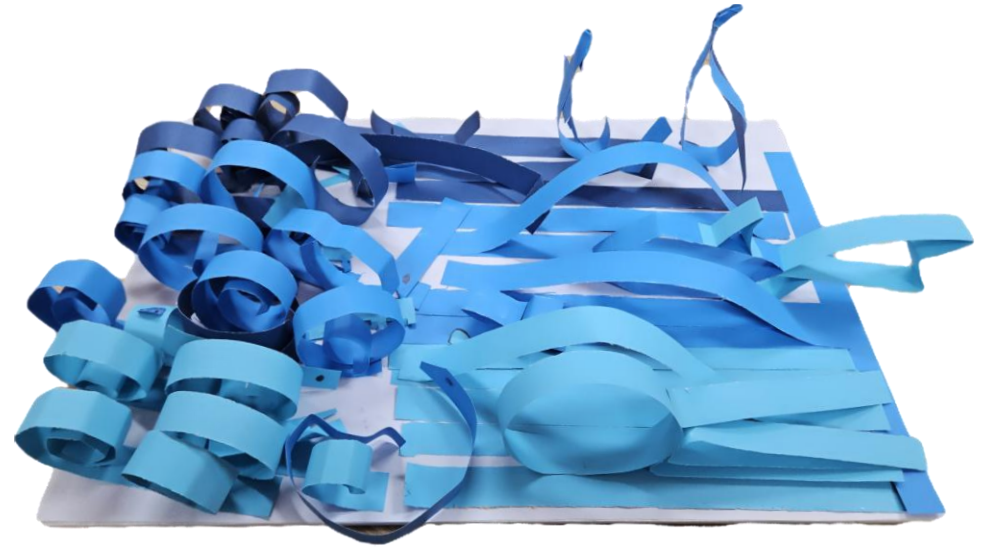
"난 내가 좋아하는
별의커비할래"



"난 해님을 하트가
많은 종지로 할거야"

종이를 이용한 작품을 소개 하며 에릭칼의 폴라쥬 기법을 살펴보고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알아보며 다양한 종이를 이용해서 나만의 폴라쥬 작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모방을 넘어 자신의 표현으로 확장되는 창조적인 경험을 해봅니다.

두가지 작품은 어떻게 다를까?



너희가 만든 작품을 비교해 볼까?

“에릭칼 작품을 만든 것과 너희들이 긴 띠종이를 이용해 만든 것은 어떻게 다르니?”

“에릭칼 그림은 납작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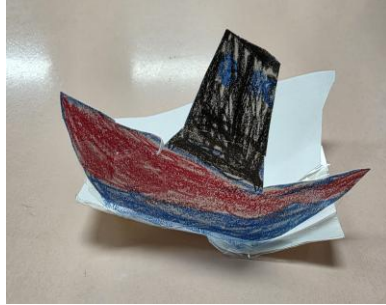
“바다작품은 진짜 파도치는것 같아요!” “ 진짜 같아요” “세워져있어요” “ 입체어요”

유아들이 만든 작품을 비교해보았습니다. 두 작품의 차이를 발견하여 평면은 납작한 그림같고, 입체는 진짜같고 세워져 있는 것이라 더 멋지다며 **형태에 대한 이해를 형성해 갑니다.** 또한 이후 입체 구성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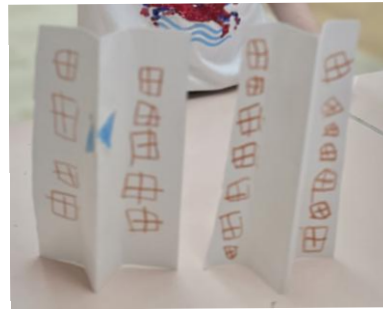
세워지는 종이의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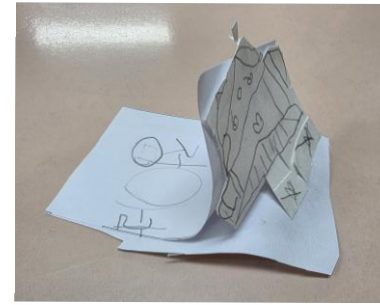
농구골대



배



아파트



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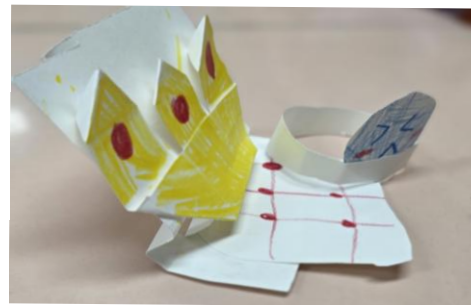
꽃



캐릭터



물안경



금관



유니콘

유아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입체의 모습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유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세우면 입체라고 하는 유아들이 있었습니다.

왜 자꾸 쓰러질까?



“뒤에가 너무 납작해서 그런가?”



“바람이 불면 그냥 넘어가는데...”

“건드리면 자꾸 납작해지네!”



“자꾸 뒤집어 지잖아.”

그런데...세워서 만든 입체는 자꾸 쓰러지거나, 뒤로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어떻게 해야 쓰러지지 않을까?를 생각하게 되었고, 무게중심을 잡거나, 면을 더 추가해서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기도 하고 두꺼운 종이로 해야 한다며 수정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양옆이 막혀있어야 입체예요~



인형



집



유니콘



바구니



두쫌쿠



집



“옆에가 모두
막혀야해요”



“수학학원에서
입체는 기둥도
있고 정육면제도
있다고 했어요”



“진짜 세워지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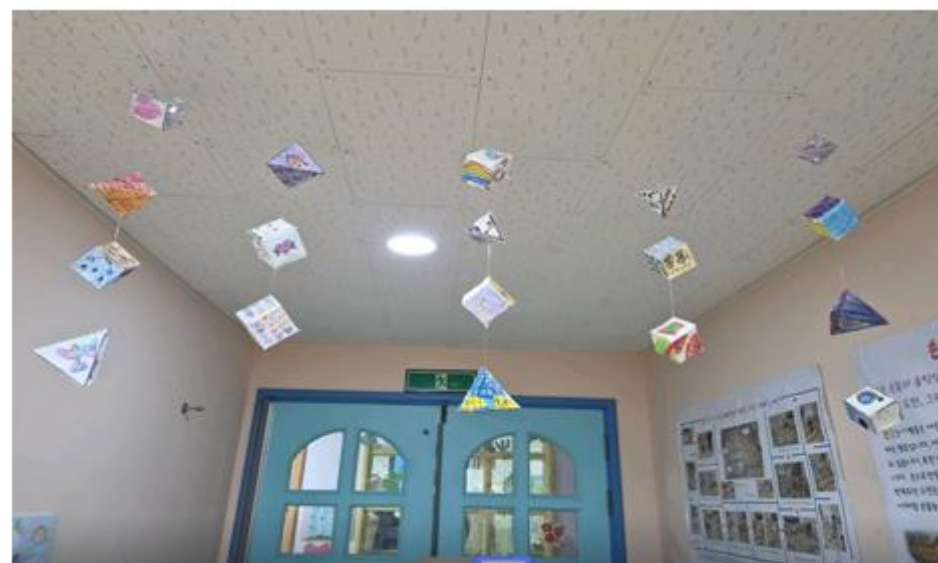
양옆이 막혀있어야 입체라고 하는 유아들도 있었습니다.
진리반 유아들은 세워지면 입체라는 생각이 대부분이었지만,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입체의 개념을 재 구성하는 과정**이 이루어졌으며 자신의 관점을 확장해 나갑니다.

“면이 다 막혀 있어야 입체라구요!!”



“난 주사위 처럼
만들거야.”

“나도 네모난
입체하고싶어.”



면이 다 막혀 있어야 입체라고 그렇게 배웠다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럼 우리도 그런 입체를 만들어 보기로 하고 종이를 이용해서 정사각, 삼각면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평면이 모여 입체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입체를 만들어 문 앞에 붙여주자고 해서 공간을 꾸미는 즐거움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진짜 입체로 만드니까 귀엽다”



“엄청 길게 연결되어있다.”

“그건 몸통이야. 얼굴 먼저 해”



“내꺼는 진짜 어렵다.”

“몸통이랑 얼굴끼우니까 완성됐어.”



여러 면을 연결하고 결합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스스로 입체 캐릭터를 만들며 즐거워하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유아들의 흥미를 고려해서 입체를 만드는 방법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건 집이 모두 모여있네요”



“종이로 만드는데 좋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너무 얇은 종이는 안돼요”



“두꺼운 종이를 해야지 설 수있어요”



“종이로 집 만들어볼래요”

입체로 만들어진 작품을 감상해 보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두께와 재료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어떤 종이를 만들 수있을까?”를 고민하며 두꺼운 종이를 이용해야 형태를 만들기 편하다고 하며 스스로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합니다.

종이로 나만의 집을 만든다.



“사각을 접고...”

“네모를 여러
개 만들어서
붙일거야.”



“문도 만들어야지”



“나는 긴 아파트
만들거야”



“벽을 만들어서 붙여야 겠다.”



한장의 종이를 이용해서 스스로 모양을 만들어 보며 집도 만들고
지붕도 만들어봅니다. 종이를 접고 세우며 집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구조와 균형에 대해 경험하는 시간**
이 되기도 하며 자신만의 공간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색종이로 더 예쁜 집을 만들래!!



색이 진하게 표현되지 않자, 더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본 후,
색종이를 이용해서 더 예쁜 나만의 집을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어? 색종이가 자꾸 떨어지잖아!



친구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전시장을 만들어 전시를 합니다.
하루, 이를 지나다 보니 색종이가 들뜨고 지저분해 진 것을 보며 유아들은
물감으로 칠하고 싶다는 의견으로 다시 집을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더 깔끔한 집이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집을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대고 자를거예요~”



“선을 삐뚤 삐뚤 자르면 안돼!”

“접을 때도 손으로 짹! 눌러 접어야돼 ”

“그러면 자가 필요한대?”

“맞아. 자를 가지고 하면
선도 삐뚤 삐뚤 안해!!”

“맞아.
자를 꼭 눌러서 그려야돼!!”



“테이프도 조심히 붙여야 돼.”

“테이프 붙일 때 벌어지지 않게
붙이면 좋겠어 ”



처음에는 예쁜 집에 관심을 가졌지만 유아들은 완성도 있는 집을 만들기 위해 선을 반듯하게 해야하고, 크기를 맞추고, 붙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등 **완성도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 튼튼하게... 더 정교하게...



<왕관 집>



<할머니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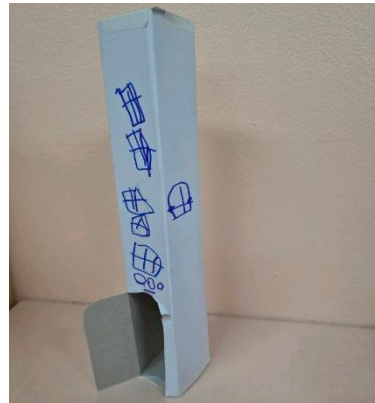
<창문이 동그란 집>



<놀이터가 있는 집>



<비밀번호가 하트인 집>



<5층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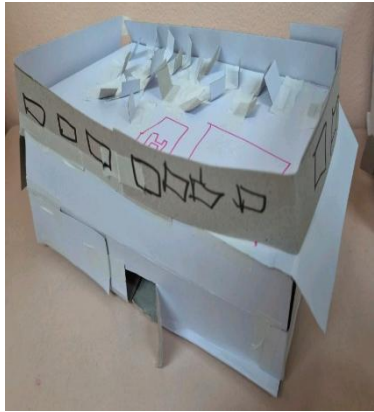
<편의 점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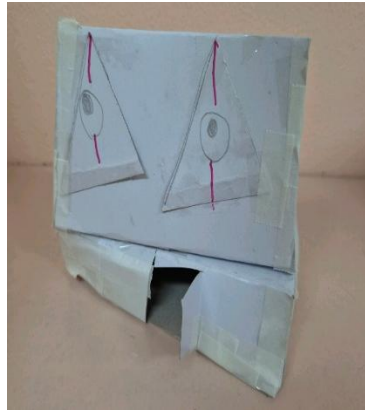
<옥상에서 점프할 수 있는 집>

내가 만든 집에 무늬를 그려 보기도 하며 더 예쁘게 집을 꾸며봅니다.

나만의 집을 튼튼하게 꾸며요~



<옥상에 잔디가 있는 집>



<유령의 집>



<지붕이 예쁜 집>



<솜사탕의 집>



<거미가 사는 집>



<울타리가 있는 집>



<빌라>



<별똥별이 있는 집>

나만의 집에 이름을 붙여 더 예쁜 모습으로 만들어 봅니다.

아이들의 놀이는
계속됩니다 ♡

